

광주·전남 가계대출 급증세...금융권 '대출 옥죄기'

광주·전남 1분기 동향

올해 광주·전남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의 10배 수준으로 불어나는 등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이 대출 조이지기에 나섰다.

1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광주·전남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61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621억원)보다 9.9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1분기 신규 대출액은 광주·전남 지역 모두 관련 통계를 낸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 1분기 주택담보대출은 16조6384억원으로, 전년(5조8527억원)보다 2.8배(184.3% ↑) 증가했다.

광주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4313억원으로, 전년(25.8배)로

광주 5554억원 등 1조76억원...전년 동기대비 3.9배 '껍충'

주택담보, 5524억 늘어난 6145억...광주 25.8배 '전국 최고'

늘어났다. 광주에 이어서는 대전(16.2배), 대구(10.3배), 인천(9.1배), 세종(6.8배), 강원(4.4배), 충북(3.3배), 부산(3배), 제주(2.8배)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증가율을 밑돈 지역은 울산(2.4배)과 전남(2.3배), 전북(2.1배), 경남(1.9배), 서울(1.8배), 충북(1.5배), 경기·경북(각 1.3배) 등 8개 시도이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광주·전남 1분기 신규 가계대출은 광주 5554억원·전남 4522억원 등 1조7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2601억원)의 3.9배(287.4% ↑) 수준이다. 1분기 가계대출액이 1조원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를 낸 지난 2008년 1분기(1299억원) 이후 처음이다.

광주·전남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1.0%로, 전년 비중(24.0%)의 2.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국회에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며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 관련 자금 수요 탓에 가계대출 급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측은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주택 매매·전세 거래 관련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장기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성

장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은행은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MCI·MCG 대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이 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민금융, 소상공

인 금융 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고자 대출 물량 관리 차원에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3월부터 MCI·MCG 대출을 중단했다.

농협은행은 16일부터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줄인다.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가 각각 0.2%포인트(p)씩 줄어든다. 그만큼 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종 금리는 높아진다.

공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우량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인 '신나는 직장인대출'과 '튼튼 직장인대출'은 우대금리가 각각 1.2%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0.2%포인트 줄어든다.

또 토지, 공장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우대 한도가 1.0%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낮아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 열기, 지붕 뚫겠네

광주·전남 주택매매 소비심리 '역대 최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무색하게도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주택매매 소비심리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열기가 여전히 달아오르면서 주택업체들의 분양 기대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국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21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지역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112.3 대비 2.5포인트 오른 114.8을 기록했다. 전남 역시 111.5로 전월 111.2보다 0.3포인트 올랐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하며,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 중에서도 주택시장(매매+전세) 소비심리지수는 광주가 전월보다 3.3포인트 오른 116.1을 기록했고, 전남은 0.4포인트 오른 112.1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또한 광주가 전월보다 5.2포인트나 오른 124.4를 나타냈으며, 전남은 1.4포인트 상승한 117.6이었다.

이처럼 안정될 줄 알았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강한 규제에도 오히려 집값 상승 등 열기가 더해지면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 경기 기대감 역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전국 분양경기심리지수(HSSI) 전망치는 102.5로, 지난달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7년 9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처음 기준선(100)을 넘긴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105.8로 전월 대비 5.8포인트 오르며 17.4포인트 오른 대전(125.0)과 10포인트 오른 울산(100)에 이어 6개 지방광역시 중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은 전월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91.6을 기록했다.

실제 지난달 민간아파트 분양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5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지난달 m당 423만6000원으로 전월 대비 1만8000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0만4000원이나 증가했다.

다만 전남은 m당 292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3000원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2만8000원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두 얼굴'의 K9 온다

기아 대표 플래그십 세단 '더 뉴 K9' 출시

'정숙' 3.8 가솔린·'역동' 3.3 터보 가솔린

기아는 15일 대표 플래그십 세단인 '더 뉴 K9'의 온라인 쇼케이스 영상을 공개하고 판매에 돌입했다.

이날 기아에 따르면 더 뉴 K9은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안전·편의사항과 품격있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대형 세단에 걸맞은 상품성을 지녔다.

세계 최초로 전방 주행 환경을 인식해 변속기를 제어하는 '전방 예측변속 시스템(PGS)'을 적용했

으며, 기아 최초로는 전방의 노면 상태에 따라 차량의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적용해 안정적인 주행환경을 구현했다.

이밖에 모든 트림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2(HDA 2)와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MCB)을 기본 탑재했고, 터치 방식으로 운전자와 상호작용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지문 인증 시스템과 필



기 인식 통합 컨트롤러, 터치스크린 기능이 적용된 뒷좌석 듀얼 모니터 등이 새롭게 장착됐다.

14.5인치 초대형 와이드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클러스터-헤드업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등도 신규 적용했다.

디자인은 외장의 경우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에 'V'자 형상의 교묘한 크롬 패턴을 적용했고, 좌우 수형으로 연결된 리어 램프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내부는 시트의 허리받침과 쿠션까지 확대된 칼링 패턴과 리얼 우드 소재로 인테리어의 품격을 높였다.

더 뉴 K9은 정숙성을 갖춘 3.8 가솔린과 역동적인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3.3터보 가솔린의 총 2개 모델로 운영되며, 트림 체계는 2개(플래티넘, 마스터즈)로 단순화했다.

가격은 3.8 가솔린 플래티넘 5694만원, 마스터즈 7137만원이며, 3.3 터보 가솔린의 경우 플래티넘 6342만원, 마스터즈 7608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비대면 상품가입 경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원록 세 번째)은 지난 14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비대면 상품가입 행사 '방구석 탈출 도장찍기' 참가자 12만4251명 가운데 603명을 추첨해 일체형 세탁건조기와 식기세척기, 커피상품권 등을 전했다. <광주은행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58.63 (+6.50)
↓ 코스닥	997.37 (-0.04)
↑ 금리(국고채 3년)	1.307 (+0.020)
↑ 환율(USD)	1117.00 (+0.3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링링~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